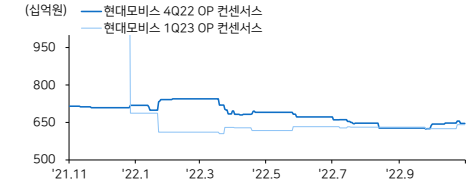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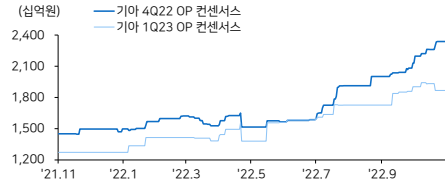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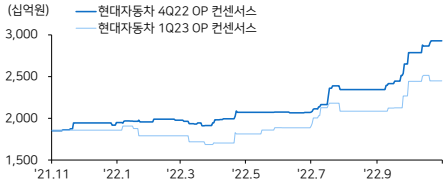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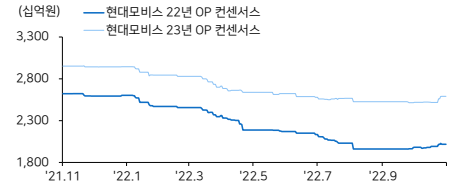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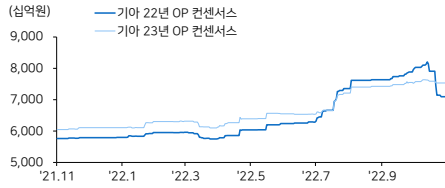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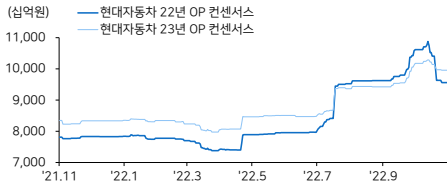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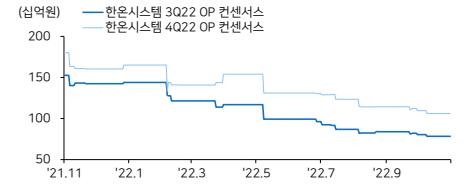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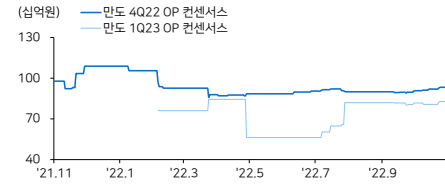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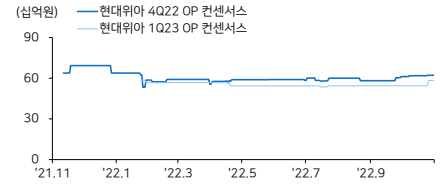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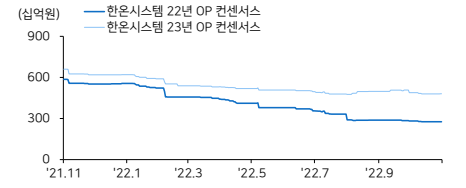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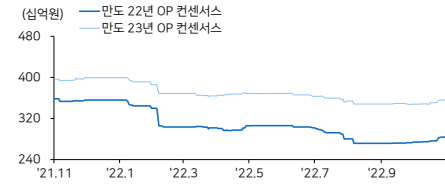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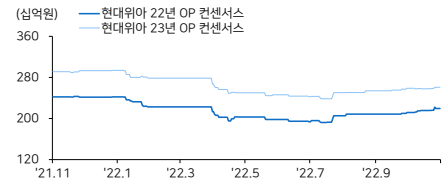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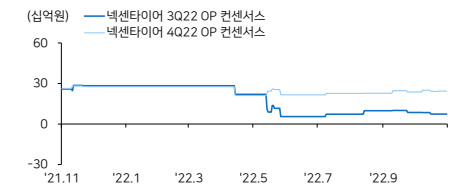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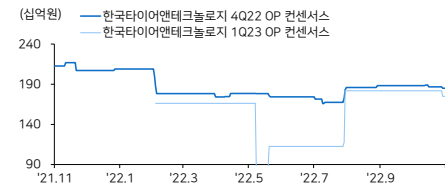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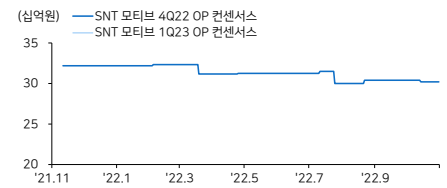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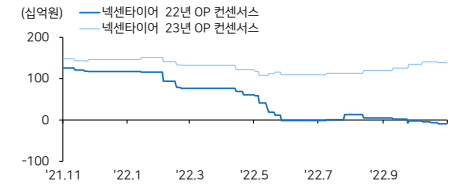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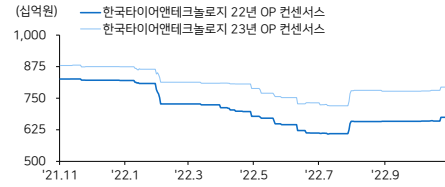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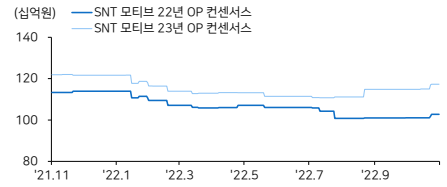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싼타페 라인저 GV80 생산... 현대차, 울산 2공장도 혼류생산 (조선비즈)

현대차의 인기 SUV '팰리세이드'와 '싼타페'를 생산하는 울산 2공장 2라인에 내년 1월 공사를 진행해 다차종 생산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 한 개 라인에서 다양한 차종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현대차가 설비 개선에 나서고 있다.

### 현대모비스 · HL만도, `K-전동화`로 중사업 확장 (디지털타임스)

현대모비스와 HL만도가 전동화 부품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는 중.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한국산 전장부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 Tesla sells 71,704 China-made vehicles in Oct, CPCA data show (CNEV Post)

Tesla는 10월 10일 상해공장에서 생산된 BEV 71,704대를 판매, yoy +31.83% 기록. 테슬라는 중국 판매 증가를 위해 지난 10월 가격을 인하하고 '오너 추천 프로그램'을 재개한 바 있음. 상해공장 Capa는 현재 110만대 수준.

### Europe - the warning light flashing on carmakers' dashboards (Reuters)

BMW와 스텔란티스가 유럽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 2023년 2분기까지 해당하는 분량의 백오더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로 인한 구매력 하락은 우려되는 요인. 현대차는 여전히 신차 대기가 긴 상황.

### 1~9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국내 3사 25%...CATL 35% (뉴시스)

올해 BEV 배터리 누적 사용량에서 국내 3사 점유율이 25.2%를 기록. 사용량 순위는 중국 CATL이 1위, LG에너지솔루션이 2위를 차지, 중국에서는 CATL과 BYD가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10위권 업체들이 모두 세자리 성장률을 기록.

### "벤츠, BMW 제치고 1위"...10월 수입차 판매 35.2% ↑ (전자신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신차 효과가 맞물리며 지난달 수입차 국내 판매량이 YoY +35% 증가. 메르세데스-벤츠는 BMW에 내준 1위 자리를 탈환. BEV는 아우디 Q4 e-트론 40이 957대 판매돼 1위를 차지.

### BYD sells record 217,816 NEVs in Oct, up 8% from Sept (CNEV Post)

BYD는 10월 217,816대 NEV를 판매, 사상 최고치를 경신. BEV는 103,157대를 판매, yoy +150% 상승. 해외 시장에서는 9,529대를 판매하며 mom +23% 상승함. 1~10월 NEV 누적판매는 139.8만대로 yoy +234% 상승.

### XPeng G9 Approved For Robotaxi Testing Without Any Hardware Changes (InsideEVs)

XPeng은 양산모델 G9의 하드웨어 변경 없이 OTA만으로 로보택시 테스트 차량으로 전환, 10월 31일 광저우 교통국의 자율주행 임시주행 허가를 받음. Xpeng G9 모델은 라이다 등 센서와 Nvidia의 Orin Chipp을 탑재.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